

(주)신안천사김, ‘신안 1호 나눔명문기업’ 가입

권동혁 대표, 전남 사랑의열매에 1억 기부 약속
“지역사회 나눔 파장으로 ‘나눔 문화’ 확산하길”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주)신안천사김이 전남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신안 1호로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나눔명문기업’은 1억원 이상 기부했거나, 3년 이내 기부를 약정한 고액 기업 기부 프로그램으로, 사회가치 창출과 공익에 기여하는 기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 기부자 모임이다.

이날 신안군청에서 열린 가입식에는 김동국 전남 사랑의열매 사무처장과 권동혁 (주)신안천사김 대표, 김대인 신안 부군수, 광대석 신안군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직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권 대표는 지난해 2월 전남 사랑의열매의 아너 소사이터티(5년 안에 1억원 기부·기부 약속)

정)에 신안군 6호, 전남 151호로 가입함과 동시에 1억원을 완납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해왔다.

나눔명문기업 신안군 1호로 가입한 (주)신안천사김은 기업 차원에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기로 했다.

권동혁 (주)신안천사김 대표는 “나눔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을 사회에 되돌려주는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남 사랑의열매와 함께 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신안천사김이 기부한 성금은 돌봄이웃과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주)신안천사김이 15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전남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신안 1호로 가입했다.

비로 전액 사용된다.

김동국 전남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신안군에서 첫 번째 나눔명문기업이 탄생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며 “(주)신안천사김의 나눔명문기업 가입이 지역사회에 커다란 나눔 파장으로 퍼져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고영국 광주소방본부장, 현장점검으로 업무 개시

취임식 없이 5·18민주묘지 참배…건설현장 안전점검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제21대 본부장으로 취임한 고영국 신임 본부장(사진)이 15일 건설현장 안전 점검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고영국 신임 본부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 광주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며 첫 공식 일정에 나섰다.

이어 남구 월산동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고 본부장은 자율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철저한 예방 활동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고 본부장은 1994년 소방사 공채로 공직에 첫발을 디딘 후 제주 서부소방서장,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충청북도소방본부장,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고영국 본부장은 “141만 광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며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최고의 119서비스를 제공해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 서구, 시민 안전한 도시 조성 박차

안전 취약 시설물 등 재난 대비 중점 점검

광주 서구가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안전 점검에 나선다.

서구는 지역 내 안전 취약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등 재난 대비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민과 전문가 설문조사, 주민 점검 신청제 등을 통해 선정한 점검시설 90개소에 대해 오는 6월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유관기관 등 민·관이 함께 진행한다.

특히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건설공사장 등 안전취약시설에 대해 드론 등 안전점검 장비를 활용해 시설물 유지관리, 재난 대비,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제거해 나갈 방침이다.

공무원, 구민감사관, 안전관리자문단, 국토안전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구정장 직속 ‘안전여사대’를 운영해 안전취약시설과 건설공사장 등 10개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서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 또는 긴급한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사용제한·대피명령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집중 안전점검 시스템을 활용해 대상 시설의 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사항 등을 관리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과 현장을 중심으로 사전에 위험 요인을 꼼꼼하게 살피고 철저한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한 도시 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 북구의회는 15일 ‘개원 3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광주 북구의회, 개원 34주년 기념행사 개최

광주 북구의회는 15일 ‘개원 3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행사는 최무송 북구의회 의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축사, 주민·공무원 유공 표창, 청렴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축사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전진숙·정준호 국회의원, 신수정 광주시장, 최수열 대구 북구청장, 이흥식 의정동우회장이 함께했다.

이어 유공자 표창에서는 의정과 북구 발전에 기여한 주민 26명과 공무원 7명이 수상했다.

끝으로 20명의 북구의원들은 청렴한 의정활동 실천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최무송 의장은 “개원 34주년을 맞은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자세와 소통의 마음가짐으로 구민과 북구 발전을 위해 나아갈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조선대병원, 개원 54주년 기념식 성료

병원 발전 기여 교직원 표창

조선대병원은 15일 병원 의정관 김동국홀에서 개원 54주년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김이수 이사장, 김춘성 총장, 김진호 병원장, 임성훈 치과병원장을 비롯해 보직자와 교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개원기념식은 김이수 이사장과 김춘성 총장의 축사와 김진호 병원장의 기념사와 병원 발전에 기여한 교직원 표창으로 진행됐다.

김진호 병원장은 “지난 54년 동안 조선대학교병원은 지역의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교직원들이 있기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원은 현재 전국 최초 감염병 전문 병원 건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발걸음을 내딛으며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선대병원은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PEOPLE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김한호 수필가

고향 광양에 도서 250권 기증

광양시는 고향 출신으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한호 수필가가 자신의 저서 ‘마음의 꽃’ 250권을 시에 기증했다고 15일 밝혔다.

수필가이자 문학평론가인 김한호 작가(문학박사)가 기증한 ‘마음의 꽃’은 생명과 인간성 회복, 향기로운 삶을 향한 내용을 담은 에세이집인데 국보 103호인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최초로 김양식에 성공해 김을 보급한 김 사시지,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품은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족 등 고향 광양의 역사 문화를 섬세하게 그려 냈다.

시는 기증받은 도서 250권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작은도서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할 계획이다.

김 작가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자연과 더불어 살며 마음을 수양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글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정인화 시장은 “지역 문학인으로서 고향에 대한 애정을 담아 집필한 귀중한 저서를 기증해 주신 김한호 작가님께 감사 드린다”며 “이번 기증이 시민에게는 따뜻한 울림으로 전해지고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jin@gwangnam.co.kr



광주 서부경찰

등굣길 교통안전 합동캠페인

광주 서부경찰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에 나섰다.

15일 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구 풍암초등학교에서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50여명이 참석해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서다. 보다. 걷다’ 보행 안전 3원칙을 홍보하고,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 등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박종욱 서부경찰서장은 “교통안전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교통시설 보안 개선과 중대한 법규 위반자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같은센터. 문의 062-374-2818.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여,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모집 모집▲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

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부음 ▲최순임씨 별세=조상주·상진·상열(대동문화재단 대표)·상중·상기·금순씨 모친상=13일 오후, VIP장례타운 101호(광주시 서구 매월동 323-6), 발인 4월 16일 오전 7시 30분, 장지 나주 금천 선영. 062-521-4444.

▲박노숙씨 별세=박승환(무등일보 디지털편집장 취재2본부 기자)씨 조부상. 14일 오전, 여수제일병원장례식장 VIP 1호실(전남 여수시 학동 1길 24), 발인 4월 16일, 장지 여수시 소호동 선영. 061-692-4444.

▲전연호(㈜부영기업 대표이사)씨 별세=박지영씨 남편상. 전행운·동희·서경씨 부친상. 14일 오후, 만평장례식장(광주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24) 302호, 발인 17일 오전 7시30분. 장지 영락공원. 062-611-0000.

운세 (음력 3월 19일)

쥐 48년생 새움지마에 비유할 만하다. 60년생 정보가 귀하게 매우 유익할 것. 72년생 진을 정비 해야겠다. 84년생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 96년생 친구들과 서둘러 화해하라.

토끼 51년생 스트레스 해소를 잘하라. 63년생 가족 도움으로 고비를 넘긴다. 75년생 출가한 노력이 성공을 앞당긴다. 87년생 강한 나무가 부러지지 쉽다. 99년생 환경이 달라지겠다.

말 54년생 전세를 정리해 볼 수 있다. 66년생 초지일관한다면 무난할 것. 78년생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90년생 이상행을 못 만났으면 도전하라.

돼지 57년생 소인배와 일하면 안 좋은 일을 겪는다. 69년생 해묵은 정정이 속 해결 될 것. 81년생 귀하의 지분 마저 포기 할 것. 93년생 오랜만에 여인과 데이트 하는 날.

소 49년생 배우자의 이해를 먼저 구하라. 61년생 구술수에 오를 수 있으니 주의. 73년생 처신을 잘한다면 따르는 이가 많다. 85년생 숨겨진 능력이 발휘되는 날. 97년생 쉽게 피로가 누적될 수 있다.

송아지 52년생 자녀로 인한 금심수가 있을 것. 64년생 문서 거래는 절대 이행되지 않는다. 76년생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다. 88년생 진심으로 대하고 행동하라.

양 55년생 도로상의 사고를 조심. 67년생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옳다. 79년생 마음을 비우고 대세를 관망할 때. 91년생 장래성이 있는 일에 밀고 나가는 날.

개 58년생 자녀에게서 좋은 선물을 받는다. 70년생 배우자 외의 이성은 반드시 후회. 82년생 주변사람에게 사기 당할 우려가 있다. 94년생 뜻밖의 충격을 받고 고민할 수다.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작명

호랑이 50년생 재정 문제는 당분간 어려워진다. 62년생 미진한 부분을 손질하라. 74년생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라. 86년생 자존심 싸움을 하지 말 것. 98년생 친구의 갑언이설에 속지 마라.

팬 53년생 속 사정을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는다. 65년생 마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 77년생 지인 사이에 다툼이 생긴다. 89년생 열심히 뛰고 노력하면 금전 소득.

원숭이 56년생 문서에 갈등이 우려된다. 68년생 뜻하지 않던 문서가 들어온다. 80년생 돌발적인 변수가 보이니 대처하라. 92년생 주관적인 행동으로 역효과 보는 날.

돼지 59년생 중랑강 있게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 71년생 도모하는 일이 호황을 맞게 된다. 83년생 목전에 부합한다면 추진하라. 95년생 가족의 도움으로 인정 받는다.